제13강 오류와 비존재 I

(1교시)

이제 플라톤은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본격적인 존재론적 분석에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이지 어렵기 짝이 없는 물음 앞에 놓이게 되었다오. 왜냐하니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보이는 것, 참을 말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나 저제나 풀기 힘든 근본난제(根本難題=아포리아)를 던져주기에 말이오. "오류/거짓은 실재한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면서 모순에 빠지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이오.(236E)

소피스트들은 거짓을 참으로 속이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게 보이는 것"과 "~인 것"이, 거짓과 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피스트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규정은 허망한 것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좀더 심층적인 층위에서 물음을 던진다. 참과 거짓의 구분 이전에, "도대체 거짓/오류라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오류/거짓이 실재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필경 모순에 빠지게 된다. 왜인가? 우리는 무엇이 오류/거짓인가에 대해 논쟁할 뿐 오류/거짓이 실재한다는 것을 의심치는 않는다. 플라톤의 물음은 그리스 존재론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틀에서 솟아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틀은 무엇인가?

이어서 나오는 다음 구절은 이하에서 전개되는 논의 전체의 구도를 담고 있다.

그런 주장은 대담하게도 비존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오. 그런 전제 없이는 그렇게[오류/거짓은 실재한다고] 주장하기가 불가능하기에 말이오. 그런데, 테아이테토스, 위대한 파르메니데스님께서 때로 운문으로 때로 산문으로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소이까?

존재하지-않음[비존재]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경계하라.
그대의 생각을 그런 주장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지도록 하라.
(단편 7)

이 구절은 바로 파르메니데스님의 권위를 담고 있다오. 하지만 이 말이 진리인지는 그것을 시험에 부쳐 봐야 보다 분명히 판가름되지 않겠소이까.

www.artnstudy.com

(2교시)

거짓/오류는 비존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왜인가? 우선 그리스어 “einai”는 오늘날의 “to be”와 마찬가지로 “있다”와 “~이다”를 동시에 뜻했음에도 파르메니데스의 시대에는 오로지 “있음”으로서만 이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위의 번역은 파르메니데스식 번역이지만, 플라톤의 시대 정도가 되면 다음과 같이 고쳐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아니다”이다 라는 주장을 경계하라.

무와 부정은 때로 혼용된다. “~이 아니다”와 “~이 없다”. “그는 용기가 없다(He has no courage)”는 “그는 용감하지 않다(He is not courageous)”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의 경우 둘은 혼용된다기보다 아예 구분되지 않는다. ‘einai’는 “있음”으로서만 이해된다. 따라서 부정의 문장은 무의 문장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This is not a pipe)”는 “이것은 파이프-있음의 없음이다”로 이해된다. 더 정확히 말해, “이것은 파이프가-아니(not)-(이)다(is)”가 “이것은 파이프-없음의 있음이다”로 이해된다. 때문에 이런 표현은 모순된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 아님”이라는 표현은 곧 ‘비존재’의 ‘존재’를 함축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순된 것이다. 비존재의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이 아님”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이 아님”을 “~임”으로 말하는 오류도 가능하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어지는 대화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37B-C)

이방인: 우리는 [위험천만하게도] 절대 무(to mêdamôs on)를 언급하곤 하지 않소?

테아이테토스: 물론입니다.

이방인: […]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누군가가 이 ‘비존재(to mê on)’라는 말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느냐고 물음을 제기한다면 […] 어떤 대상에 또 어떤 성격에 따라 적용된다고 해야 하겠소이까?

테아이테토스: 정말 어려운 물음이네요. 제 수준에서는 대답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테아이테토스가 역부족임을 고백할 정도의 난문(難問)이 제기되었다. 이방인이 언급한 ‘to mêdamôs on’과 ‘to mê on’, 이 두 표현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to mê damôs on’이 전적으로/아예 없는 것이라면, ‘to mê on’은 절대 무로도 또 상대 무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플라톤은 이 두 표현을 우선은 절대 무의 의미로 동일시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친부살해’ 이하의 논의는 ‘to mê on’이 ‘to mêdamôs on’만이 아니라 상대 무를 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즉 ‘to mê on’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디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명민한 테아이테토스를

www.artnstudy.com

좌절시킬 정도로) 만만찮은 물음임을 강조한다.

www.artnstudy.com